

“자율주행 주도권 잡아라”… 현대차·KGM, ‘데이터 전쟁’

‘2028년 양산’ 실증 속도전

현대차, 광주 실증에 아트리아 AI 차량·SW 연계 데이터 생태계 구축
KGM, 강남 로보택시 20대 확대
실도로 운행으로 E2E 기술 고도화

현대자동차그룹과 KG모빌리티(KGM)가 국내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해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전남광주를 비롯한 국내 실증사업에서 차량과 플랫폼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는 반면, KGM은 서울 강남에서 로보택시를 직접 운행하며 실제 도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양사의 전략은 다르지만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민관·산학 협력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전략은 개별 차량의 자율주행 성능을 넘어 차량과 소프트웨어(SW), 모빌리티 플랫폼을 하나로 묶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중심에는 데이터 플라이휠이 있다. 차



KGM 구역형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에 운영되는 토레스 EVX.

량과 파트너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하고 AI를 학습·개선해 향상된 기능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로 다시 차량에 배포하는 방식이다. 개선된 기능을 고객이 사용할수록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다시 AI 학습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독자 개발한 엔드투엔드 모델 아트리아 AI를 중심으로 데이터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기아·포티투

닷·모셔널이 각각 확보한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 생태계를 기반으로 그룹 내 센서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데이터 유니온’을 구축했다.

또 올해 말 시작되는 전남광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 실증사업에도 아트리아 AI를 투입해 돌발 상황 등 자율주행 AI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본격적인 양산 적용 시점을 2028년으로 잡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첫 SDV 양산차에 레벨2+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대규모 주행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다. 이후 2029년부터 아트리아 AI를 양산차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L2+부터 L4까지 자율주행 전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실증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우버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이오닉5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KGM은 상대적으로 ‘실도로 검증’에 무게를 둔다. KGM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디스와 차세대 엔드투엔드(E2E)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2E 방식은 인지와 판단, 제어를 하나의 AI 시스템으로 처리

하는 기술로, KGM은 이를 통해 자율주행 제어 SW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강남에서는 실제 승객을 태운 로보택시 운행 범위를 확대한다. KGM은 SWM과 협력해 기존 코란도 EV에 이어 토레스 EVX를 추가 투입하고 운행 구역도 강남 전역으로 넓힌다. 올해 말까지 로보택시 생산 물량을 20대 이상으로 확대해 운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연구실을 넘어 상용 서비스 단계로 진입하면서 어느 기업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AI 학습과 안전성 개선에 연결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박민우 현대차그룹 AVP본부장 겸 포티투 대표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앞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누가 더 많은 경험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 더 빠르게 AI 학습으로 연결하느냐가 새로운 경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영우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2030년까지 中企 수출 1800억달러 정조준

중기부 ‘4대 혁신 전략’ 본격 추진 ‘글로벌 스케일업 500’ 신설 집중육성 K-브랜드 전략품목 1000개까지 확대

정부가 수출기업 저변 확대,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1500억 달러를 2028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2030년까지 1800억 달러까지 늘린다.

10만개를 넘지 못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2030년까지 11만2000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강소기업 숫자도 지난해 기준 2279개사에서 2030년까지 290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 정책을 제고하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의원입법으로 돼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에도 가속도를 붙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4대 혁신 전략에는 ▲‘글로벌 스케일업 500’ 신설로 고속성장 지원 ▲품목·방식



중소벤처기업부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일 서울에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다양화를 통한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 ▲인도, 유럽, 싱가포르, 몽골,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협력 채널 기반 신시장 진출 활성화 ▲수출정책 지원 기반 정비, 지원·분석·플랫폼 통합 등의 내용을 두루 담았다.

중기부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국장)은 전날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로드맵 수립을 돕고 다년·묵음 지원으로 기업의 고속성장을 유도할 것”

이라며 “패션, 푸드, 뷰티 디바이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차세대 K-브랜드 전략품목으로 발굴·육성하고 소비재 수출에 필요한 물류·지식재산·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뷰티·푸드·패션·라이프, 신산업 등 소비·산업재 전략품목군과 수출 고성장 잠재기업 풀(pool) 등을 활용해 후보군을 추리고 이 가운데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소비재 등 신성장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포함해 내년에만 총 500개사를 선정해 80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 ON 2000’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에 도전하는 청년창업가, 소상공인, 지역기업, 수출제도전 기업 2000개를 선정해 성장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10개사를 선정한 ‘K-브랜드 전략품목’은 2030년까지 K-뷰티 400개(비 화장품 150개 포함), K-푸드 200개, K-패션 200개, K-라이프 200개 등 총 1000개사를 선정해 홍보·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돕는다.

/김승호 기자 bada@

SK이노, 울산CLX ‘듀얼 브레인’ 제조AI 혁신

생산·예지정비·안전에 AI 적용
로봇·드론 활용 검사체계 공개

SK이노베이션 울산CLX가 생산 최적화와 설비 예지정비, 안전관리 등 정유·석유화학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개하고 AI의 판단력과 현장 엔지니어의 경험을 결합한 제조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CLX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리는 ‘WAVE 2026(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제조 AI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참여 업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SK 전시관에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서비스에서 제조 AI로 이어지는 그룹의 AI 밸류체인이 구현된다. 전시관 입구에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울산 남구 용연동에 건설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모형을 설치해 데이터센터가 제조업의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WAVE 2026(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SK관 조감도. /SK이노베이션

전시 핵심은 AI의 판단력과 울산CLX 엔지니어의 현장 경험을 결합한 ‘듀얼 브레인(Dual Brain)’이다. 전시관 중앙에 듀얼 브레인 포털(Dual Brain Portal)을 설치하고 생산 최적화와 설비 예지정비, 안전·보건·환경(SHE) 등 제조 현장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생산 최적화 AI 존에서는 AI가 여러 공정의 수많은 변수를 분석해 최적의 운전 조건을 찾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신안보 혁신기업 발굴·육성 본격화

이달 우수기업 선별 특별법도 추진

정부가 미래 신안보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9월 중 우수기업 풀(pool)을 구성한다.

우수기업 풀 등록→후보기업 지정→혁신기업 지정을 통해 신안보 전략분야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 발의도 적극 추진하는 등 더욱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에서 관계부처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매출 1000억 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풀은 중기부의 ‘모두의 챌린지 방안’ 선정기업, 방사청의 방산혁신기업, 분야별 공공인증 기술·제품 인증기업, 안보·방산 관련 정부부처 사업 참여사 등이 대상이다. 풀 구성을 위해 협단체 추천, 기업 직접 신청 등도 받을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포스코그룹

AI·로봇 등 미래인재 채용

포스코그룹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미래 사업을 이끌 인재 확보에 무게를 싣는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분야 채용을 강화하고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선발 체계도 손질했다. 3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DX, 포스코이앤씨, RIST 등 6개사가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생산·설비 기술과 영업·마케팅, 안전·보건, AI 등 60여개 직무에서 세 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에쓰오일, AI 데이터센터 냉각기술 실증

KTNF·GST와 액침냉각 상용화 추진

에쓰오일(S-OIL)이 국산 서버 개발전문기업 KTNF, 액침냉각 장비업체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GST)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에쓰오일은 KTNF, GST와 AI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기술을 실증하고 관련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발열이 증가하는 가운데 액침냉각 기술의 성능과 안정성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액침냉

각은 서버 등 전자장비를 비전도성 냉각유에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기술이다.

실증 테스트는 KTNF 본사에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센터에서 진행된다. 에쓰오일은 액침냉각유 ‘S-OIL e-쿨링 솔루션’을 공급하고 성능 분석과 기술 자문을 맡는다. KTNF는 서버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GST는 액침냉각 장비 운영과 성능 검증을 담당한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KTNF의 서버와 에쓰오일의 액침냉각유, GST의 냉각장비를 연계한 국내 액침냉각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향후 다양한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